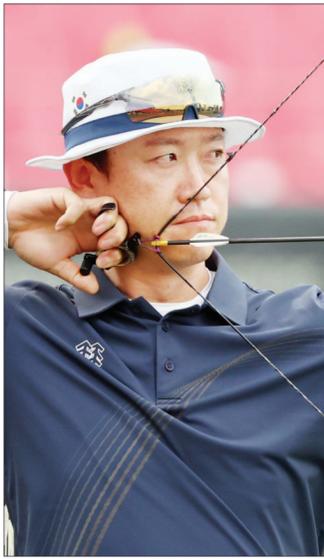


SPORTS

2025년 9월 4일 목요일



김우진



최용희



안산



임시현

최강의 공사들 광주로 집결... '세계양궁선수권' 내일 팡파르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5·18민주광장서 80개국 500여명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주목... 컴파운드는 세계무대 '첫 선'

세계 최정상급 공사들이 광주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치러진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 지난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76개국에서 온 501명의 공사와 임원 및 관계자 230명이 참가.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남녀 개인전·남녀 단체전·혼성 단체전) 10개의 금메달을 놓고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리커브 경기는 8~12일 치러진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컴파운드는 공식 연습을 포함해 5~8일 열린다. 사람의 힘만으로 쏘는 리커브와

달리 컴파운드는 도르래와 케이블을 활용해 활을 당기는 방식이다.

각 종목 결승전은 5·18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을 제외한 토너먼트 경기와 예선 라운드는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진행된다.

송승현 남자대표팀 감독과 호진수 여자대표팀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리커브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금메달 5개를 쏘아올리겠다는 각오다.

앞서 한국 리커브 양궁은 2021년 미국 양크턴 대회에서 세계선수권 5개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룬 바 있다.

당시 3관왕에 오른 김우진(청주시청)과 그와 함께 남자 단체전 우승을 이뤄낸 김제덕(예천군청)이 이번 남자 대표팀에도 선발됐다. 두 선수와 더불어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단체전

금메달,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이우석(코오롱)이 이번에도 힘을 보탠다.

여자 대표팀 또한 강력하다.

양크턴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에 기여한 안산(광주은행), 강재영(현대모비스)이 이번 대표팀에도 나란히 출전한다.

'도쿄 올림픽 3관왕' 안산은 이번 대회에서 광주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각오다. 그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문산초-광주체중-광주체고-광주여대를 졸업한 데다 현 소속팀도 광주은행이다. '광주의 딸' 안산이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재영은 도쿄 올림픽과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우승에 기여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한동안 국가대표 1군에 선발되지 못했다.

4년 만에 대표 1군에 복귀한 강재영은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 여자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 2관왕에 오르며 물오른 기량을 자랑했다.

여기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올림픽에서 연달아 3관왕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의 여공사 임시현(한국체대)이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로 나선다.

다만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총집결하는 만큼, 한국 리커브 대표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않다.

김우진과 10년 넘게 경쟁해온 라이벌이자 리커브 남자 세계랭킹 1위 브레이디 엘리스(미국), 브라질의 '양궁 네이마르' 마르쿠스 달메이다. 양크턴 대회 남자 개인전 우승자 메테 가조즈(튀르키예) 등이 우리 대표팀의 대항마다.

특히 남자 단체전에서는 올해 4차례 월드컵에서 금, 은, 동메달을 하나씩 가져가며 상승세를 보인 프랑스의 상승세가 매섭다.

여자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올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표팀은 세계 2위이자 파리 올림픽 혼성 단체전 동메달리스트 케이지 코폴드가 주축이다.

중국 대표팀에서는 세계 5위 리자만이 올해 월드컵에서 두 차례 개인전 동메달을 따내는 등 부쩍 성

장한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대회는 어느 때보다 컴파운드에 높은 관심이 쏠릴 거로 보인다.

컴파운드가 LA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세계선수권대회이기 때문이다. 컴파운드는 남녀 공히 한국이 최강인 리커브와 달리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약조건에서도 한국 컴파운드 양궁은 역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수확했다.

다만 2020년대 들어서는 한 번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남자 대표팀의 최용희, 김중호(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는 올해 월드컵 4차 대회에서 7년 만의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여자 대표팀의 한승연(한국체대), 심수인(청원시청), 소채원(현대모비스) 역시 6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멈추지 않고 좋은 모습 이어가겠다”



프로축구 광주FC 안영규와 신창무가 K리그 통산 300경기과 2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3일 광주FC에 따르면 안영규는 지난달 3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2012년 수원삼성에 입단해 프로에 입문한 안영규는 2013년 일본 J리그 기타큐슈를 거쳐 2014년 대전시티즌으로 이적하며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2015년 고향팀 광주에 입단해 33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전류에 기여했고, 안산·아산 무궁화와의 성남FC를 거쳐 2022년 다시 광주로 복귀하며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열었다.

복귀 직후 주장 완장을 찬 안영규는 팀을 K리그2 역대 최단기간 우승과 최다 승점 신기록으로 이끌며 구단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해 시즌 MVP도 수상하며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 승격 첫해인 2023년에는 팀의 K리그2 역대 최고 성적과 장단 첫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이끄는 주장이 됐다.

올 시즌 주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며 현재 리그 11경기에 출전 중인 안영규는 광주 소속으로 100·200·300경기를 모두 달성한 최초의 선수라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300경기를 맞이한 안영규는 “프로 선수로서 300경기를 달성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 특히 100경기, 200경기, 300경기를 모두 광주에서 기록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



고 앞으로도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창무는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을 기록했다. 신창무는 지난달 2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강원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다.

2014년 대구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신창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펼쳐왔다.

이후 2021년 강원FC를 거쳐 2023년 광주에 합류했다. 입단 첫해에는 제한적인 출전 기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전역을 누비는 활동량과 날카로운 왼발 킥으로 팀에 기여했다.

광주 3년 차인 올 시즌 신창무는 입단 이후 가장 많은 리그 경기(15경기)에 출전하며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코리아컵 준결승

광주FC 안영규·신창무
통산 300·200경기 달성



2차전 부천전에서 빼기골을 터뜨리며 팀을 결승 무대로 이끌었다.

200경기를 맞이한 신창무는 “어떤 선수로 경기를 치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서야 팬들 앞에 많이 설 수 있어 초췌한 마음도 크다”며 “지금껏 옆에서 가장 고생한 가족, 또 기회를 주신 감독님을 비롯한 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넘치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4일 대구FC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는 안영규와 신창무의 기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단은 이를 기념해 티셔츠, 키링, 머플러, 포토마킹, 페넌트 등 기념 굿즈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민과 호흡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모아야”

광주시체육회, 국민생활관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광주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시기적절과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체육회는 3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5개 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상호 소통·화합, 시·구·체육회 간 의견 공유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도자들이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문학 속 배려와 소통(강사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 ‘생성형 AI와 체육지도 수업 혁신(강사 김영옥 핵심가치연구소 대표)’, ‘생활 속 부상 예방

트레이닝(강사 이상열 이즈튜디오 대표)’ 등 인문·소양 및 실기 강의를 진행해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광주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호봉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 발짝 앞설 수 있었고, 지도자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교육은 스포츠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 존중해 나가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스포츠도 복지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도자들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3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5개 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